현 군수 불출마 '무주공산' 표심 누가 잡을까

담양군수

민주 김정오·이병노·최화삼 경선
무소속 김기석 군의원도 도전장

김정오

이병노

최화삼

김기석

담양군수 선거는 최형식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인 군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과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인다.

여기에 김기석 담양군의원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고 바닥을 누비고 있다.

김정오 담양군의장은 3선 군의원을 지낸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담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농업예산 증액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스마트팜 특례 군 조성 ▲대단위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병노 전 국장은 40년 담양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담양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한 '청렴한 일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생활 동안 군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추진해 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과 홍조근정훈장(대통령)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지역발전대상 지역부분 대상을 받았다.

이 전 국장은 관행 타파와 혁신, 예산·인사·인허가 등 공정 행사 등 군정 운영의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여 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해오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여기에 4·5대 담양군의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식 군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접촉면을 넓히며 절치부심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선 김기석 담양군의원은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로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의정활동 기간 담양군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와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철우 재선 주목…임영수·선형수와 당내 경선

보성군수

임영수 도의원, 6선 경험 살린 의정활동
선형수 전 국민통합본부장 도전장

김철우

선형수

임영수

보성군수 지방선거는 김철우 현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임영수 전남도의원, 선형수 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장이 김 군수와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8년부터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 성장의 큰 기틀을 다지며 군민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군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괄목할 만한 군정 성과를 거뒀다. 재임 기간 4등급이었던 군 청렴도를 2등급으로 끌어올려 청렴한 보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김 군수는 특히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가정 내 청취 마을방송 구축, 농림축산어업 예산 1조원 시대, 보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임영수 도의원은 보성군의회 4선 의원(3~6대)과 전남도의회 2선 의원(10~11대) 등 6선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전시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상고 총동문회 보성지역회장, 보성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보성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인맥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그는 농·수·축·임산업 육성 원스톱 플랫폼 구축, 12개 읍면 조화와 특화, 균형사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4대 권역별 사회서비스원 개원, 벌교읍 대학병원급 응급의료센터구축, 농촌의료·여성 의료 및 힐링센터 조성, 군민부자되기 프로젝트, 농촌 기본소득 단계별 시행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선형수 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장은 보성군민 대표로 도민체전 선수와 감독으로 활동하며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기획해 군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3년 간 군민과 학생을 위해 지역 미술교사, 작가와 함께 미술동아리도 만들어 전시와 문화공동체 구성에 앞장서 온 결과, 영광스러운 보성군민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뉴스타트협동조합' 창업지원 및 1차 산업 기반 혁신 스타트업 입주단지 조성,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지역별 특성산업 협동조합을 연계시켜 마을마다 '뉴스타트협동조합' 육성, 비효율적인 거대 시설 간접지원이 아닌 마을기업이 민간주도로 자유롭게 활용 있도록 자금 직접투자, 기술 지원을 위한 R&D 비용 확충, 뉴스타트협동조합과 4차 산업 기술 결합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복규 '조직력'이냐 vs 문행주 '경험'이냐

화순군수

민주당 경선 치열한 2파전
무소속 후보들 움직임 없어

구복규

문행주

화순군수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문행주 전남도의원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고,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소속 현 군수의 3선 불출마로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당내 경선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지역으로 분류된다.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하고,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부의장은 화순군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역량을 키웠다.

도의회 9대, 11대 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구 부의장은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해 말 3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일찌감치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시작했다.

최근 공정과 혁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화순을 기치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화순을 만들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그는 혁신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남도 관광 1번지 실현을 위해 '화순천·지석천·동복천 국가정원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구 예비후보는 "화순군의 자연·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해 화순군민뿐만 아니라 힐링과 휴식을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도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과거 화순군의회 5~6대 의원을 지낸 뒤, 도의회 10대 의원으로 입성해 11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전남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조례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건의안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문 의원은 전국농민회 전남도연맹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 무등산권 공동개발과 도시교통망 확충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호남의 중심 도시 화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수소에너지시범도시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며 "폐광을 앞둔 화순탄광을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로 추진해 광주광역권 에너지의 저장과 유통 중심지로 만들어 화순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 선거 전국 최고 득표율 김준성 3선 도전

영광군수

이동권과 경선…승리시 무소속과 대결
강종만 전 군수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

김준성

이동권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는 3선에 대한 거부감 탓인지 선거 초반만 해도 입지자들로 북적댔지만 민주당 공천 심사를 거치며 2인 대결 구도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로 김준성 영광군수와 이동권 전남도의원을 결정한 상태로, 이들 공천 경쟁의 승자가 무소속 후보와 본선을 치르는 구도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5.02%)로 당선될 정도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내세워 3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김 군수는 8년의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군민 행복을 위한 1일 1공약'이라는 이름을 매일 발표하는 정책선거 행보로 지역민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원전 재원을 활용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공약' 모집·발굴, e 모빌리티 단지와 연계한 AI 융합특화대학원 유치 등 매일 공약 한 개씩을 내놓으며 주민 마음을 얻는 데 공을 쏙고 있다.

다만, 3선에 대한 부담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석산 개발행위 과정에서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관심거리다.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은 '더불어 행복한 영광,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3선 도의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직 과정에서 배운 경험을 영광에서 쓸 기회를 달라며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영광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 읍·면마다 파크 골프장 설치 등의 실생활 공약도 제시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소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군정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를 남은 경선 기간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점은 과제다.

무소속 후보로는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시 도전장을 냈지만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 만큼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여부는 관전 포인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